

일제강점기 근대화에 따른 ‘신체론’ 부상 고찰

柳 徹*

金 順 槓**

(e-mail : yanakawa0@gmail.com · sjkim77@jnu.ac.kr)

< 목 차 >

- | | |
|---------------------|------------------|
| 1. 들어가기 | 4. ‘前近代’에서 ‘近代’로 |
| 2. 서양의 충격과 일본의 수용양상 | 5. ‘精神’에서 ‘身体’로 |
| 3. 문명의 충격과 일본의 대응양상 | 6. 나오기 |

키워드 : 身体論(Somatologie), 近代化教育(Modernization of education), 西政文明(Western civilization), 身体教育(physical education), 日本帝國主義(Japanese imperialism), 日帝強占期(Japanese colonial era)

1. 들어가기

일본의 근대화과정에 서구세력의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시기의 세계적 정황을 보면, 강국으로 군림하고 있는 국가의 정세가 상당히 복잡했는데, 미국은 남북전쟁으로 혼란스러웠고,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 등은 수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패권 문제로 서로가 얽혀 있었으며, 러시아의 남진 때문에 온 신경이 흑해주변과 동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었다.

당시 미국은 태평양 항로가 동양에 이르는 정상 항로로 지정되자, 이러한 세계정세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의 무역개방을 통한 아시아국가로의 시장을 확대하고, 이윤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두었다. 미국의 이러한 의도에 의해 개화하게 된 일본은 1854년 3월 3일 가나가와(神奈川)에서 미국과의 불

* 전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박사.

** 교신저자, 전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평등한 <미일화친조약>을 맺어 그동안 길었던 막부시대를 끝내며 근대라는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 편입되었다.

이렇게 근대화를 맞이한 일본이 조선과 맺은 조약의 체결 과정을 보면 일본이 서구와의 사이에서 보여주는 문호개방 과정과 많은 면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철저한 계획과 준비 속에 이루어진 <을사늑약>(1905)을 통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였고, 국권을 송두리째 탈취한 병합(併合) 이후에는 조선총독부를 거점으로 군·경찰·관료 등 막강한 권력기구를 동원하여 조선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

결국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병합한 일본은 개화 당시 그들이 겪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토대로 한층 더 보완·강화하여 조선을 하루 빨리 일본화 시키기 위해 철저히 계획하고 그들을 교육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모습은 한마디로 선별적 모방이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점은 모방이 일본에서 더 나은 결과를 야기할 것으로 믿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도 서구에 대한 강한 흥미와 모방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 같다. 지리적 위치로 보아 자신을 ‘동아시아의 영국’으로 인식한 이들은 유럽에서 영국이 행한 권한 행사를 자신들이 아시아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는 당시 서구 강국들과 일본의 제국팽창에 대한 인식의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당시 영국의 제국 팽창이 적어도 19세기 말까지 자신감의 표현이었다고 할 경우, 일본의 그것은 열등감의 표현이 아니었는가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일본은 개화와 더불어 서양 여러 국가와 어쩔 수 없이 불평등 조약 관계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어떤 점에서는 일본 제국주의는 그들이 겪은 수모를 동양의 이웃들에게 역으로 적용하여 되풀이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¹⁾.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서구에 대한 일본의 문호개방이 메이지시대 일본의 근대화방향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얻은 충격과 대응이 당시 조선 교육사에 미친 영향, 그리고 교육의 흐름이 전근대에서 근대로 어떻게 변천되어 가는지 등을 교육사적 시각으로 근대기의 시대적 대응 양상을 조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아가 유교식 정신적 이론에서 서구식 신체이론으로 어떻게 적용시켜 나아갔는지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1) 박지향(1998) 「영국 제국주의와 일본 제국주의의 비교(I)」, 『영국 연구』 제2호, pp.161-162.

2. 서양의 충격과 일본의 수용양상

일본은 <아편전쟁>(1840)으로 청국이 외세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고 커다란 충격에 빠졌다. 일본은 고대로부터 스승의 나라로 여겨온 중국이 서구세력 앞에 무력하게 무릎을 꿇는 것을 보자 위기의식을 감지하게 되면서, 쇠국으로 일관해 온 정책을 전면수정하게 된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일본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1853년과 1854년 미국의 페리 제독의 내항을 계기로 <미일화친조약>을 체결하면서 영국, 러시아, 네덜란드 등과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불평등한 조약이 빌미가 되어 양이론자(攘夷論者)를 중심으로 한 반대세력과의 갈등으로 막부체제에서 근대국가로의 변화는 과도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 결과 일본은 서구 열강으로부터의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미국과 유럽에 유학생을 파견하기 시작하면서 서구열강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일본은 1871년에 당시 국가 주요직위자들이 대거 포함된 이와쿠라사절단(岩倉使節團)을 결성하여, 서구문명화의 흡수와 격차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즉 이는 일본정부가 근대화를 위해 추진한 대표적인 국제화 프로젝트이자 세계정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미래인재를 육성하고자하는 오늘날의 패러다임과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시기 동아시아에 위치한 모든 국가가 그렇듯이, 일본도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줄곧 문명모델로서 중국의 것을 받아들여, 道와 文을 우선시하는 정신 문명 중심의 사고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는 에도막부의 최고교육기관인 쇼헤이코(昌平黌)의 주장인 하야시 라잔(林羅山)²⁾의 세계관에서도 엿볼 수 있다.

道가 있으면 文이 있고, 道가 없다면 文도 존재하지 않는다. 文과 道란 이치는 같으나 사실은 다르다. 道는 文의 근본이자, 文은 道의 끝이나라, 끝은 작고 근본은 크다 따라서 쉽게 굳어진다³⁾.

2) 하야시 라잔(林羅山)(1583~1657) 일본의 성리학자. 관학으로 성리학 발전에 기여하였다.

3) 「道あれば文あり、道あらざらば文あらず、文と道とは理同じくして事異なり。道は文の本なり、文は道の末なり。末は少にして本は大なり、故に能く固し。」平岡敏夫(1979) 『日本文學史概説 近代編』有精堂, p.1.에서 재인용

일본에서는 막부말기까지 세 개의 학과가 존재했는데, 첫째는 한학(漢學), 둘째 국학(國學), 셋째 난학(蘭學)으로, 일본의 지식인들은 대부분 한학서(漢學書)를 통해 문명을 배우고 받아들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일본에서도 오래전부터 중국을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결국 유교사상에 입각한 사교가 ‘정신과 신체’를 분리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점차 출판업이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계몽서가 출판되었는데, 일본에서는 중국 서적이 아닌 영서(英書)를 참고하도록 권장하였다.⁴⁾ 이러한 과정에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서구문물을 전파시키고자 다양한 사업을 펼치게 되었고, 유학생과 사절단을 활용한 서구서적의 번역 사업을 정책적으로 주도하게 된다.

근대화 초기 후쿠자와 유키치(이하 후쿠자와)는 자신의 문명론에서 모든 것을 상대화하여 인식하고자 하였으나, 전통적으로 유지해온 ‘지(智)’에 대한 강조는 변함이 없었다.⁵⁾ 물론 그동안에 덕행이 주를 이루었던 사서오경의 근본이념에서 근대는 학문과 유학을 병행할 것을 강조한다. 이는 문명을 발전시켜 개화시키는 데는 인간과 사회의 정신을 보편적으로 발달시키는 것이 근대에 나아가야 할 길임을 인식하고 서구식 신식교육의 진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이란 인간을 기른다고 하는 뜻으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물을 아는 존재가 아니다.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 몸으로 익힌 것이 있는 자가, 그 익힌 것을 다음 세대(2세대)에 전하고 다음 세대(2세대)는 또 다음 세대(3세대)로 전수하여 인간 세계의 모습을 점차적으로 좋게 발달시키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일반적인 사람 누구라도 차별이 없이 반드시 교육의 문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어떠한 재능 있는 자나 달인일지라도, 사람에게 배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얻어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교육은 온 나라에 보편적으로 행해야만 하는 것이니라. (중략) 따라서 지금의 유학자 역시 도덕의 하나에 안주하지 말고, 열심히 지학에 뜻을 두되, 지덕도 고르게 얻음으로써, 비로소 사서오경을 강론하게 해야만 한다⁶⁾.

4) 平川祐弘(1996) 『日本 幕末維新時代の 文明모델의 전환 -古代中國에서 近代西洋으로-』 일본연구 11집, p.17.

5) 李根松(2000)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개화적 교육론에 대한 일고찰』 『韓國教育史學』 제22집, p.180.

6) 「教育とは人を教え育つるという義にして、人の子は、生れながら物事を知る者に非ず。先きにこの世に生れて身に覚えある者が、その覺えたることを二代目の者に伝え、二代目は

그래서 메이지 신정부는 그의 발상과 신념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이행하기로 결정하였다.⁷⁾

따라서 위기의식에 빠진 일본은 결국 쇠국을 풀게 되며, 근대국가로 이양되는 과정에서 서구열강들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체제를 의도적으로 흡수하여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구의 일반적인 것까지 모든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문명의 충격과 일본의 대응양상

근대 일본에 있어서 개별국가 관념의 성장은 仁義禮智 또는 華夷觀 같은 정치·사회적인 유교적 규범주의(성리학적 가치체계)에서 탈피하여 사실지향성의 지적 전통에 매개되어 성장한 권력주의가 대내적으로 一君萬民의 존왕양이론과 공의여론사조의 변천과정을 규정하고 이것이 대외적으로 전통적인 해외옹비사상 내지는 해외팽창주의를 촉발시킴으로서 근대국가형성을 국가주의 형태로 방향 지워 갔다.⁸⁾ 이러한 과정에서 계몽가들은 다양한 근대화론과 상반되는 세력들에 의해 의견이 엇갈리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궁극적인 국권확립과 부국강병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서구 문명이 인류가 가야 할 보편적 길이라 믿었고, 더욱이 일본은 '동아시아의 영국을 자처하고 유럽에서 영국이 행한 방식들을 자신들이 아시아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⁹⁾.

『大韓帝國官員履歷書』를 보면 1891년 당시 일본은 한반도에 日語學堂을 지어, 조선인 학생 13명에게 일본어를 포함 지리, 역사, 산술, 회화, 이학, 화학, 체조 등을 가르쳤다고 기록되어있다.¹⁰⁾ 그리고 이들에게는 4개월에서 1년여

三代目に授けて、人間の世界の有様を次第次第に良き方に進めんとする趣意なれば、およそ人の子たる者は誰れ彼れの差別なく、必ず教育の門に入らざるをえず。いかなる才子・達人にても、人に學ばずして自から得たるためしあることを聞かず。教育は全國一般にあまねくすべきものなり。(中略) ゆえに今の儒者も道德の一味に安んずることなくして、勉て智學に志し、智徳その平均を得て、はじめて四書五經をも講論せしむべきなり。」
福澤諭吉(1987) 『福澤文集』 2編 卷1 松口榮造, pp.12-17.

7) 최은아(2002) 「일본 근대화의 두 흐름」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2.

8) 박충식(1996) 『근대일본에 있어서 국가주의의 형성』 서울대학교출판부, p.70.

9)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2005) 『일제 식민지 지배의 구조와 성격』

경인문화사, p.356.

동안 일본어를 가르친 뒤, 이들을 일본으로 유학 보내거나 조선에서 일본어 교육을 담당케 하였다. 특히 이들은 <청일전쟁>, <러일전쟁> 당시 일본군 혹은 일본 관리의 통역을 담당하는 등, 이후에 조선과의 관계에 있어서 철저히 이용되기도 했다¹¹⁾.

일본은 청국에게 조선 내정이 불안하니 동등한 입장으로 사실상 조선을 공동관리 신청을 하며, 한반도에서 청국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명분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 곧이어 조선의 내란을 진압하고 동양의 평화를 위해 조선을 청국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은 일본의 의무이며, 국권의 영광이라 주장하였다.¹²⁾ 당시 조선은 아직 청국을 종주국으로 섬기고 있었고, 다른 어떤 나라에도 문호를 개방하지 않은 실정이었다. 따라서 <아편전쟁> 발발 이후 계속되어 온 청국의 약체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머지않아 강력한 보호자를 가지지 못한 조선이 서구 열강, 특히 러시아에게 정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일본 지도자들은 판단한 것이다. 물론 막부 말기 단계부터 주장되기 시작한 소위 <征韓論>에는 당시의 긴박한 정세와 더불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조선을 멸시하고 속국시하는 관념도 작용하였다¹³⁾.

어떤 면에서 1873년에 대두된 <정한론>은 메이지체제의 지배세력이 지니고 있던 팽창욕구의 한 표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그때는 내정에 충실하자는 측과 <征台灣論> 측의 승리로 <정한론>을 주장한 측이 후퇴했지만, 그것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표출되는 메이지체제의 본질적 흐름의 하나가 되었다.¹⁴⁾ 이는 이 시기의 주변국 조선과의 관계에 있어 자신들의 입장을 합리화시키고, 한반도 진출에 대한 명분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강조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이 같은 배경은 일제강점말기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역사교과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는 당시 조선이 근대화를 이루는데 일본이 긍정적으로 참여한 부분을 서사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일본과 조선의 왕래는 점차 활발하게 이루어져, 일본 국민들 중에서는 동아(東亞)개발

10) 국사편찬위원회(1972) 『大韓帝國官員履歷書』 탐구당, p.92.

11) 이계형(2007) 「대한제국기 통감부의 식민교육정책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5.

12) 「時事申報」 (1894.6.1) 「朝鮮の文明事業を助長せし可し」

13) 大江志乃夫(1992) 「東アジア新舊帝國の交替」 『近代日本と植民地』 第1卷 岩波書店, p.10.

14) 한국일본근대문화학회(2002) 『일본근대문화1』 월인, p.124.

이라는 뜻을 품고 조선에 건너가는 사람들이 늘었고 거류민의 수도 늘어나자 깊은 유대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우리나라(일본)가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며, 나날이 번창하는 것을 보고 깊은 뜻을 깨달은 자들이 반드시 우리나라에게 배워 국력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다시금 내선일체의 물꼬를 트이게 되었습니다. (중략) 청은 속국의 난(갑오개혁: 필자주)을 지켜내기 위함이라 하여 조선에 병사를 보내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공사관이나 거류민을 보호하기 위해 병사를 조선에 보냈습니다. (중략) 그래서 청에게 서로 힘을 합세하여 조선의 치안을 유도하고 치안을 다지자고 했습니다. (중략) 조선은 우리나라의 권유를 받아들여 제도를 바로 잡음과 동시에 청에게 속국이 아니라는 뜻을 확실하게 전달했습니다¹⁵⁾.

위 내용은 1944년 조선인 학교에서 사용했던 역사교과서 중 한 단원의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서 앞서 언급한 일본 침략의 정당성을 교과서에 기술하여 조선인에게 합리화시키고 있다. 이 단원의 주요 골자는 조선이 일본의 문호개방 시스템을 부러워하고 일본에게 간청하는 모습을 기술함으로써 조선에서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을 부러움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일본은 주변국인 청국과 러시아의 세력이 한반도에 미치게 되자 '조선의 국력을 회복시키기 위해'라는 명분을 내세워, 조선에게 무한한 우호국으로써 도움을 주는 듯한 일본천황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서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위 내용은 <갑오개혁>이 일어나자 청국의 병사가 조선에 파병되는 것에 맞서기 위해 일본도 군대를 파병하여 조선을 위해 서로 화합하자는 메시지를 청국으로 보내지만 화합의 손길을 청국에서 먼저 수락하지 않았던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한국사에서 두 나라의 세력이 조선에 집중되자 조선이 두 나라에게 철수요청을 보내어 청국은 이를 수락하고, 일본은 이를 거부하

15) 「わが國と朝鮮とのゆききは、しだいにしげくなり、わが國民の中には東亞開發のこころざしをいだいて、朝鮮にわたるものが多くなり、居留民の數もふえて、親しみがふかくなりました。さうして、朝鮮では、わが國が新しい文化をとり入れ、日ましにひらけてゆくを見て、めざめた人人が、ぜひともわが國にならつて、國力をもりかへさなければならぬと考へるやうになりました。このやうにして、内鮮が一體になるいどぐちが、ふたたびひらけてゆきました。(中略) 清は屬國の難を救ふためであるといつて、朝鮮に兵をだして來ました。わが國も公使館や居留民を保護するために、兵を朝鮮に送りました。(中略) そこで、清に對して、たがひに力をあはせて朝鮮の政治をみちびき、治安をかためることにしようと、もうし出しました。(中略) 朝鮮は、わが國のすすめに應じて、制度を改める方針をたてるとともに清にむかつて、その屬國でないことをはつきりと申し送りました。」朝鮮總督府(1944)『初等國史 五學年用』「東亞のまもり(一)」

였는데,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정 반대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은 그동안 청의 속국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여, 먼저 일본에게 도움을 청하고, 일본이 그 도움을 받아들이자 비로소 청의 속국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서구의 충격에 대한 일본의 대응반응은 <탈아설>을 기저로 하는 자신들의 주권행세, 동아시아평화 변영이라는 명분으로 조선과 대만의 식민지화가 일본이 서구 열강에 대응하는 하나의 자기합리화식 군국주의와 천황제의 시작이 근대국민국가 일본의 대응방식이라 할 수 있다.

4. ‘前近代’에서 ‘近代’로

동아시아국가들의 근대화에 막중한 영향을 끼친 일본은 이러한 서구의 전근대를 탈피하는 과정에서 비슷하면서도 다소 차이점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일본은 서구가 동방취미개념으로 취해온 자기합리화 방식을 메이지유신 이후 조선과 대만을 통해 그리고 나아가 동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인식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일본의 오리엔탈리즘이 이윤배반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열등한 아시아’라는 의식에 자신들의 부족함을 괴로워하는 동시에 ‘아시아를 우습게 보는’ 우월감을 팽창시킴으로써 국가의 위세를 인접 국가에 심고자 했던 국책은 아시아에 대한 지정학적인 주도권의 확립으로 돌진해갔다. 특히 후쿠자와로 대표되는 <탈아론>은 비서구의 세계, 그 가운데에서 오리엔트를 일종의 폐쇄된 무대로 조망하는 서구에 자신의 입지점을 접근시키려는 노력이었으며, ‘구태의연한 근린(近鄰)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일본을 구별하려는 자의식’이 강화되어 양극으로 분해되고 있었다. 이제 미개한 아시아의 전형인 중국적 가치와 학문 체계를 거부한 이들은 ‘중국’을 ‘지나(支那)’로 고쳐 부르고 동양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면서 자신들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작업을 행하게 되었던 것이다¹⁶⁾.

이는 일본을 전근대에서 근대국가로 서구의 것을 재빠르게 흡수하여 그동안 무수한 번(藩)으로 나누어져 있던 봉건세력을 하나로 통일시키면서 근대국민

16) 앞의 논문, 박지향(1998) pp.169-170.

국가로 재탄생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천황이라는 하나의 표상을 내세우며,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부국강병의 국가가 성립될 수 있었다. 즉 일본의 근대화는 천황이라는 상징성을 두고, 전근대적인 모습을 유지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행해온 농업, 상업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활동이 가능했던 부분과 교육의 균등한 기회 부여 등에 대해서는 근대국가로 재편하면서 서구의 문명을 바탕으로 문명개화를 시도한 흔적인 것이다.

일본은 근대화를 통해 경제적인 분야에도 정책적으로 많은 투자와 이윤창출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당시 국가의 경제발전보다 더 우선시한 부분은 근대화에 발맞추어가는 근대국가에 걸맞게 서구의 사상과 넓은 견해를 갖춘 인재육성이 큰 과제거리였다. 그 이유는 이와 비슷한 시기에 아무리 출판업이 부흥하여, 영서의 번역서가 베스트셀러로 선정된다 한들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명개화와 함께 경제·사회 분야를 배제하고, 교육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시작하여 곳곳에 학교를 설립하였고, 이에 걸맞은 법적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갔다. 이 시기에는 외국인 선교사들을 통해 다양한 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하지만, 대부분의 조선인은 일부계층에 한해서 서당이나 성균관을 통해 학문을 닦았으며, 일본에서는 데라코야(寺子屋)를 학교로 삼아 서구의 교육 방식을 각자의 방식과 급변하는 정세에 맞추어 근대적 신식교육을 정립시키고자 하는 과도기라 할 수 있다.

진실로 일반 사람들의 智를 분명하게 계발하고, 그럼으로써 나라의 권력을 유지하고 다른 나라에 얽매이지 않으려면 근근이 인재를 배출하는 것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급무는 학교보다 우선할 것은 없다¹⁷⁾.

위 인용문과 같이 근대일본이 문명개화 이후 서양인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우선적으로 도입하고자 한 것은 서구식 견해를 갖게 하는 '새로운 지식인'의 양성을 위한 교육이었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학교설립을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교육제도를 정착화 하는데 공을 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일본에는 독립된 근대국민국가로서 통일되지 못한 치명적인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 문제란 1869년에 北海道로 개칭되기 이전 예조지

17) 堀尾輝久 지, 심성보 외 역(1995) 『木戶孝允日記』 한림신서, p.57.

(蝦夷地)에 거주하던 아이누족과 1879년에 오키나와현(沖繩縣)으로 통합되기 이전에 거주한 류큐왕국(琉球王國)의 사람들의 존재였다. 이들의 근대국민국가에 대한 결여된 사상은 자국민들 간의 언어적 소통문제와 더불어 ‘천황’을 근거로 삼은 일본식 문명인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 메이지정부는 국정교과서를 발행하기 이전부터 일본어(國語)교육을 중요시여기고 열도 내부부터 통합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추진하였다. 특히 일본은 먼저 이들에게 국민으로서의 신념과 공동체의식, 그리고 언어통일의 필요성과 근대적 가치관을 알게 하고 국가적으로 내부적인 통일을 위해 학교교육의 정착화를 서둘렀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은 1887년 국정교과서로 최초로 발행된 『高等小學讀本』에 기술된 단원의 내용을 통해서, 학교교육이 왜 필요했는가를 정당화하며 피력하는 장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일본인 스스로가 미개인으로 분류한 예조지에 거주하던 아이누족과 류큐왕국의 사람들과 언어소통상의 문제는 극도로 심각했으며, 근대식 교육을 통해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교과서를 통해서 교육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아이누의 언어는 우리의 언어와 전혀 다르다. 또한 문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읽고, 쓰기를 전혀 하지 못하고, 수를 헤아리는 것이 어둔하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은 하지 못하였는데, 1877년경부터 소학교가 생겨서, 지금은 우리들과 같이 읽기, 쓰기도 되고 계산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게 되었다¹⁸⁾.

이처럼 당시 일본에서는 아이누족과 류큐인과의 소통문제가 문명개화와 근대국가 지향에 걸림돌이었다. 따라서 교육은 일본의 근대화를 가속화시키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었고, 교육제도의 확립과 구축이 근대일본의 국민양성이라는 교화사업을 원활하게 이루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이다.

일본은 내부적으로 국가적·사회적 통합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18) 「アイヌノ言葉ハ、ワレワレトハ、マルデ、チガッテラル。マタ、文字トイフモノガナカッタノデ、讀、書ナドハ、スコシモ、デキズ、數ノカンガヘガ、進ンデイナカッタノデ、コミイッタ計算ナドモ、デキナカッタガ、明治十年ゴロカラ、小學校ガデキタノデ、今デハ、ワレワレのヨーニ、讀、書モデキ、計算モデキルモノモアルヨーニナッタ。」 文部省(1889) 『高等小學讀本』 卷四 十六課 「アイヌ」

가 발 빠른 움직임으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하였다. 1871년에는 문부성을 설치하고, 1872년에 근대학교제도 관련 법안인 <学制>를 공포하며, 곧이어 1876년에는 6세 이상의 모든 아동에게 학교교육의 의무화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관련 법규의 제정을 구체화하였다. 의무교육제도의 근본 목적은 인간의 자유평등사상과 자주독립사상에 입각하였고, 이는 메이지신정부의 강한 지도력에 기초하여 근대국가를 형성하는 수단으로 급속하게 발전했다. 이 교육제도는 학제(1872)에서 교육령(1879), 교육령의 재개정(1880)의 시행으로 1889년 각각의 학교령을 통하여 교육제도의 기초를 확고히 했다¹⁹⁾.

당시 동아시아에 위치한 모든 국가들은 서구열강에 맞서기 위한 방편으로 최우선적으로 '교육'을 택했다는 것이다. 즉 학교교육을 통해 전 국민의 개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의 부국자강을 도모하자는 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여느 국가들의 근대화 과정을 보더라도 그 시발점만큼은 같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정세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 사회적인 분위기는 당시 언론을 통해서도 수시로 대두되었다. 당시 조선 사회여론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독립신문》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이들에게 이를 전달하고자한 다음 기사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정부에서 학교를 지어 인민을 교혹 하는거시 정부에 데일 쇼중한 직무요 다른 일은 아즉 못 흐드러도 정부에서 인민 교혹은 흐여야 홀거시라 나라히 지금은 이러케 약하고 벅성이 어두워 만스가 늙의 나라만 못 흐고 늙의 나라에 업수히 녀임을받으나 조선도 인민을 교혹만 흐면 외국과 꺾치 될지라 지금 장성한 사롬들을 무론 남너흐고 교혹을 식히랴고 흐면 밍우어렵거니와 자식들을 늙의 나라 옹희들꺾치 교혹을 식히야 그옹희들이 자라셔늙의 나라 사롬 꺾치 될터이니 그째나조선도 늙의 나라 꺾치 되기를 버탈터이라 그러나 만일 즈식들을 교혹을 아니 식히면 그옹희들이 장성한 후에도 즈기 아비나 혼아비 보다 더 지식 잇는 사롬이 못될터인즉 그러면 나라히 즈기 아비나 혼아비 때 보다 엇지 낮게 되리요 즈식을스랑 흐는 사롬은 지금 브터 즈식을 교혹식히는거시 울코 만일꺾식이 학문이 잇는사롬이 되거드면 그꺾식이 다만 집만 보호 홀뿐 아니라 나라를 보호 홀터이요 그사롬들이 나라를 지금 보다 낮게 만들터이니 실상을 싱각흐면 즈식 교혹 흐는거시 꺾 나라를 위함이라 혹 사롬이 말흐기롤 지금 나라히 말이 못 되

19) 장미경(2008) 「근대한일 여성교육과 소설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4.

얏는디 언제 그즈식들이 학문을 비화 가지고 나라 잘 되게 헝기를 바라리오²⁰).

위 내용을 보면 교육의 목적을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전인적 발달에 바탕을 둠으로써, 각자가 자녀들에게 전인교육을 통해 국가적인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고자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근대 동아시아국가에서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탈피과정은 서구문명을 하루빨리 받아들여 흡수하고 이해하느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교육은 국가기반을 마련하는데 매우 중요한 교두보 역할이 되었고, 다양한 서구의 시스템과 제도를 확립하는 과정이 근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은 서구의 근대화처럼 자유와 평등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일본은 천황을 근간으로 주변국가의 식민화 및 제국주의 건설을 위해 일본국민의 교화사업이 근대화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다.

5. ‘精神’에서 ‘身体’로

문명화과정은 사회마다 다르게 진행될 수 있는데, 서구사회의 문명화는 점차 증가하는 폭력의 국가적 독점, 생리적 욕구 충족의 은밀화, 충동과 감정의 억제, 자아와 초자아의 발전 및 분화 그리고 외부적 타자 통제에서 내부적 자아 통제로의 변환과 같은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인간은 방어를 위한 공격본능을 지니고 있다. 비단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진 모든 생물들은 종족보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격본능을 지니고 있다. 문명화과정은 이와 같은 공격본능을 억제 또는 순치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도덕성, 의무, 규율, 법등과 같은 제도는 많은 부분에서 인간의 공격본능을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²¹).

서구는 이러한 인간의 공격적인 본능을 억제하기 위해 18세기에 이르러 영국에서 오늘날 스포츠와 같은 신체활동이 탄생했다면, 서구열강에 의해 근대화를 이루게 된 아시아 국가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 즉 당시 동아시아국가의 신체는 이러한 서구열강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이 동아시아국가 중에서 선

20) 「독립신문」(1896. 5. 12.)

21) 송형석(2005) 『근대성, 몸 그리고 스포츠』 이문출판사, pp.259-263.

두주자로 신체의 중요성을 연구하게 되었고, 조선은 서구세력과 일본 세력에서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뒤늦게 신체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이다.

물론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조선과 일본은 중국이라는 거대국가의 영향을 받아온 것만은 분명하나, 제도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두 나라는 서로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조선은 일찍이 文을 택하여 이를 통달하는 자만이 중요관직을 담당케 하였고, 일본은 武를 중요시 하면서 武를 통한 강력한 봉건 체제를 오랜 기간 확립해온 점이 두 나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조선은 초기 건국과 함께 민본(民本)에 근거한 당위성을 천명했다. 이러한 민본사상은 조선건국의 이념적 지향성을 선포한 것일 뿐, 지배층의 民에 대한 인식과 통치행위에 이르기까지 투영된 것은 아니었다. 당시 官人들인 지배계층은 현실적으로 民을 무지하고 도덕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지배층의 民의 지배를 합리화시켜 주는 명분으로 작용하였고, 이러한 民의식에 바탕을 둔 조선의 신분적 차이에 의한 통치 질서는 조선전기까지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후기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사회구조의 모순 속에서 나타난 집권층의 벌열화(閥閥化)²²⁾ 사회적 신분체제의 혼란 등으로 조선왕조 전기의 통치 질서는 와해되어 갈 수밖에 없었다²³⁾.

그리고 예로부터 조선의 선비들은 대체로 文을 숭상하고 武를 업신여겼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갑자기 나타난 현상은 아니며, 고려시대 이래 문존무비(文尊武卑)의 폐습이 고질화되어 선비들이 벼슬에 나가는 데도 文을 택하는 쪽이 그만큼 유리했기에 의당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선비가 武를 택하여 벼슬에 나간다는 것은 이미 선비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를 꺼려하였다. 선비들의 그러한 고정관념은 자연히 무직(武職)을 기피할 뿐만 아니라 무인(武人)을 하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²⁴⁾. 이러한 조선의 숭문천무(崇文賤武)사상은 당시 과거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기관을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문과(文科) 관련 기관은 성균관, 사학, 향고, 서재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으며, 무과(武科)는 訓練院²⁵⁾과 射亭²⁶⁾ 등이 유일하다고

22) 벌열화(閥閥化)란 나라에 공로가 많고 벼슬 경력이 많은 집안이 벌족(閥族)화 되어가는 것으로 정치권력을 독점화하는 것을 말한다.

23) 강신영(2009) 「조선후기 근대교육사상의발전 '民'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

24) 이장희(1984) 『朝鮮時代 선비研究』 博英社, p.175.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랜 문존무비에 의한 숭문천무사상은 조선과 일본이 다 같은 유교 국가이면서도 일본은 상무정신을 발전시켜 무사도를 전통으로 삼은 반면, 조선은 武를 천시하여 文弱에 빠지고, 근대화에 이르는 시기에 조선 국력의 쇠약화를 자초한 원인 중 하나라 볼 수 있다.

개화기에 이르러 발표된 「教育立國詔書」는 국가발전과 교육은 비례한다는 개념을 온 국민에게 주지시켜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되었다. 그동안에 지속되어 온 학제의 개혁을 통해 서구열강의 학문과 일본의 학문을 도입함으로써 근대 교육의 방침으로 선정하고, 사서오경에 입각한 유교 교육방식을 탈피하여 근대 교육으로 절박함을 타개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조서에서는 지육·덕육·체육이라는 교육의 3대 기강을 확립하게 되는데, 유교적 태두리에서 벗어나 체육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근대학교에서는 신체단련을 위한 체육을 중요시하게 되었고, 몸이 건강해야 외세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의 <교육칙어>를 본 따 만든 조서이기에 일본의 교육방식을 모방한 것과 마찬가지로였다. 이 시기의 조선은 일본보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나아가 국가자체가 내외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시기이었기 때문에 근대국민양성을 이루기 위한 여건이 형성되지 못했다.

일본이 서구열강의 신체와 체육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일찍 깨달은 것에 비해, 아시아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유교사상에 입각하여 학문중심 교육에 너무나도 치중하고 있었다. 그나마 일본의 경우 사무라이(侍)라는 무사 계층에 의한 정권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면서 武가 곧 권력을 증명하는 하나의 상징성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신체단련에 대한 중요성은 서구의 신체철학과 근본적인 이념은 다르나 조선이 武를 경시해온 것과 상당한 대조를 이룬다.

일본은 메이지유신과 함께 무사제도는 철폐시키나, 근본적으로 근대국가 건설에 가장 필요한 점을 <軍人勅諭>를 통한 무인정신의 계승에 두고 국가주의적 사상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이는 당시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전 국민에게 확립되어야만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구문물과 제도를 도입하여 활성화 시키고자하는 노력자체가 마침내 일

25) 1392년 조선의 개국과 더불어 오늘날의 서울 동대문운동장 부근의 명철방(明哲坊)에 설치하여, 처음에는 훈련관(訓練觀)이라 하다가 1467년(세조13) 훈련원으로 개칭하였다.

26) 활을 쏘는 장소인 활터. '射場'이라고도 한다.

본군대의 강건화를 위한 학제를 도입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학교체육과 교련을 연계하여 군인양성을 위한 '몸'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착수된 것이다.

일본이 이처럼 신체에 적극적으로 관심 갖게 된 계기는 단기간에 하루빨리 근대화를 통해 서구세력과의 국력의 차이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전통적인 부분과 환경적인 요인의 차이는 쉽게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당시 일본인들이 특히 열등의식을 느꼈던 부분은 서양인들의 체격과 체력의 격차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방식에서 당시 모리 아리노리(森有礼²⁷⁾)는 1879년 <東京學士會院>에서 서양인과 일본인의 신체적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근대국민국가로 나아가야할 교육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교육의 본질은 지식(지능·지육)·덕의(덕능·덕육)·신체(체능·체조)의 세 가지를 조화롭고 균등하게 발달시키는데 있다. 현재 일본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라 하면 신체 능력이다. 그러나 신체능력만을 발달시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덕의와 함께 세 가지의 균형을 유지시키면서 나아가는 것을 주안점으로 한다²⁸⁾.

원래 근대에 이르러 일본이 서구의 신체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알기 시작한 계기는 학제가 마련되기 이전인 1800년대 중반(페리사건 이전)까지 육체를 단련하는 측면이 아니라 종교적인 루트를 통해 흘러들어온 서양의학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면서부터라고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아시아국가 대부분이 한방의학에 의존한 민간요법과 치료를 병행해 왔다면, 새로운 서양의학을 접하게 되면서 인체에 대해 새로운 시각적 접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 시기만 해도 오늘날과 같은 의학적인 접근이 아닌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는지, 질병에 대한 예방방법과 의생학적인 시각의 접근으로 깊이 있는 연구는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페리사건 이후 직접적으로 서구열강에 의해 직격탄을 맞게 되면서 헌법이 제정되고, 다양한 사회활동과 함께 교육과 관련된 <學制>, <소학교령>, <교육칙어> 등을 신속히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

27) 모리 아리노리(森有礼, 1847.8.23~1889.2.12)는 일본의 무사(사쓰마번 출신)이자 외교관, 정치가이다. 오늘날 히토쓰바시대학의 창설자이기도 하며, 메이지정부 초대 문부대신, '明六社' 대표, 東京學會院 초대회원 등으로 지냄.

28) 「教育の本質は、知識(知能·知育)·徳義(徳能·徳育)·身體(體能·體操)の三者を調和よく均等に上達(發達)させることにある。現在の日本において最も欠けているのは身體の能力である。しかし、身體の能力のみを上達(發達)させれば良いのではなく、知識·徳義と共に三者の平衡を保ちながら進めていくことを主眼とする。」

정은 <교육칙어>에서 언급한 3대 덕목인 지육·덕육·체육에 대한 교육의 기틀이 마련되고, 그동안 경시되어온 체육(신체)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되는 시기와 일치하고 있다.

물론 일본에서도 에도시대부터 일부계층에 신체활동을 무시한 사람들이 존재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후쿠자와는 ‘그것을 잘못 생각해도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라며, 근대식 교육에서 신체를 경시한 것을 비판하며 보편적으로 다예능(多藝多能)한 사람이 될 것을 재차 강조한다.²⁹⁾ 따라서 근대일본의 신체론은 이러한 사상을 중심으로, 문존무비사상을 고수해온 조선과 달리, 일부 한정된 계층에게만 적용되어온 무사도(武士道)정신을 모든 국민으로 대상을 넓혀 적용하게 되고, 스포츠와 같은 경기도 자연스레 흘러오게 되지만, 서양인 타도라는 내재된 목적의식에서 부상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4. 나오며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서구에 대한 일본의 문호개방이 메이지시대 일본의 근대화방향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얻은 서구와 일본의 충격이 당시 조선교육에 미친 영향, 그리고 그 교육이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변형과정에서 어떻게 변용되어 가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유교적 정신이론에서 서구식 신체이론으로 적용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오늘날 이루어지게 되는 체육과 스포츠경기라는 유희거리는 국민들의 시선을 우회시키기 위한 하나의 쇼맨십으로서 동반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일본의 근대국민 만들기를 위한 초석은 서양이 스포츠경기를 도입하게 된 계기와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서양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인간의 공격적인 본능을 완화시키고, 유희거리로서 스포츠를 도입하고 국민들에게 전파했다면, 일본의 근대 제국주의 사상은 서양인과 비교하여 월등히 뒤처지는 신체적인 단점을 보완하고, 극복하기 위해 오히려 인간의 공격적인 성향을 교육이라는 틀 속에서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탈바꿈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교육신조와 다양한 이데올로기는 향후

29) 福澤諭吉 지, 남상영·사사가와 고이치 역(1995) 『학문의 권장』 小花, p.252.

조선을 병합하게 되고, 나아가 동아시아의 맹주로서 2차 대전 패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유지하게 되었다.

조선과 일본이 서구의 신체에 대해 관심 갖게 된 계기는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은 먼저 근대화를 이루게 된 주변국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함이고, 일본은 서구열강 세력에 대응하고, 서양인과 동등한 조건을 갖추기 위함이라 정의할 수 있다. 두 나라가 근대화를 맞이하게 된 부분을 시기적으로 본다면 불과 약 20년 정도에 불과하나, 결과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이게 된다.

그리고 근대조선은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나아가야 할 때 극심한 쇠국정책과 조선개국 이래 표면적으로만 文武並用을 내세우고, 文治主義를 탈피하지 못한 점과 사서오경에 입각한 '정신일도하사불성(精神一到何事不成)'의 완고함에서 탈피하지 못한 채, 신체에 대한 부분을 지나치게 경시 해왔다는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유교사상과 성리학에 얽매이게 되어 文과 武의 구분이 너무나도 명확한 계급구분의 지표였다는 점도 전통적인 교육사상이 문명의 벽을 넘지 못한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근대 한일 두 나라의 서구식 신체론의 각기 다른 수용방식은 서로 다른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당시 일본의 대응방식은 자신들이 서구세력과 당당히 맞서기 위해 강건하고 공격적인 근대 서구식 신체론을 일본인에 한해서만 교육을 추진하고 보급하며 부국강병한 근대국민국가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일본과 달리 서구식 신체론을 일본에 의해 간접적으로 접하게 된 조선은 일본에 의해 자신들에게 향할 공격적인 성향을 억제시키고, 나아가 자신들의 명령에 순종적이고 복종시키기 위한 신체로 각인시키기 위해 '정신과 신체'가 이원화의 장치로 적용시킬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강신영(2009) 「조선 후기 근대교육사상의 발전 -'民'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의 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
 국사편찬위원회(1972) 『大韓帝國官員履歷書』 탐구당, p.92.
 남상영·사사가와 고이치 역(1995) 『학문의 권장』 小花, p.252.
 박지향(1998) 「영국 제국주의와 일본 제국주의의 비교(I)」 『영국 연구』 제2호, pp.161-162.

- 박충식(1996) 『근대일본에 있어서 국가주의의 형성』 서울대학교출판부, p.70.
송형석(2005) 『근대성, 몸 그리고 스포츠』 이문출판사, pp.259-263.
李根松(2000)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개화적 교육론에 대한 일고찰」 『韓國教育史學』 제22집, p.180.
이계형(2007) 「대한제국기 통감부의 식민교육정책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5.
이장희(1984) 『朝鮮時代 선비研究』 博英社, p.175.
장미경(2008) 「근대한일 여성교육과 소설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4.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2005) 『일제 식민지 지배의 구조와 성격』 경인문화사, p.356.
한국일본근대문학회(2002) 『일본근대문학1』 월인, p.124.
최은아(2002) 「일본 근대화의 두 흐름」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2.
大江志乃夫(1992) 「東アジア新旧帝国の交替」 『近代日本と植民地』 第1卷 岩波書店, p.10.
朝鮮總督府(1944) 『初等国史 五学年用』
平岡敏夫(1979) 『日本文学史概説 近代編』 有精堂, p.1.
平川祐弘(1996) 「日本 幕末維新時代の 文明モデル의 전환 -古代中国에서 近代西洋으로-」
일본연구 11집, p.7.
福沢諭吉(1987) 『福沢文集』 2編 卷1 松口栄造, pp.12-17.
堀尾輝久 저 심성보 외 역(1995) 『木戸孝允日記』 한림신서, p.57.
文部省(1889) 『高等小学讀本』

「時事申報」 (1894.6.1)
「독립신문」 (1896. 5. 12.)

논문 투고 일자 : 2016. 06. 22. 논문 심사 일자 : 2016. 07. 25. 게재 확정 일자 : 2016. 07. 27.
--

<要旨>

日帝強占期近代化に伴う「身体論」浮上に関する考察

柳 徹·金 順 禎

本研究は、「身体」というテーマを導出し、近代日本が当時の植民地の朝鮮人教育に西洋式身体理論をどのように反映させて教化したかを時代的な面と近代化の過程を穿鑿して糾明することにした。近代化以前の日本は朝鮮、中国と同様に漢学中心の儒教的な伝統思想から脱却出来ず、「精神と身体」を徹底的に二元化し、身体を下位に概念化したまま教育していた。そんな中に発生した黒船襲来は、日本にとって西欧勢力に対する危機意識はもちろん、新しい文明に対する憧れを呼び起こし、近代国民国家の建設というスローガンを天皇を筆頭に掲げ、大々的な変革を図ろうとした。その過程で、日本は西欧文明の理解と受容に必要な知識教育の政策と制度の整備に先立ち、西欧列強の国力とその身体的優位性を克服するために、自国の富国強兵と自国民の身体強化教育がいかに重要なかを切実に悟ったのである。その後、日本は富国強兵というスローガンのもと近代国民国家を建設するために、学校教育に体育を導入することになるが、これは日本が「精神と身体」を初めて一つとして認識する契機になったといえよう。近代日本が国民に提示した身体論は、人間の攻撃的な性向を緩和させるための西欧の身体教育とは異なり、「西欧勢力打倒」という目的意識が反映された身体論であったのは明らかである。しかし、これを通して、日本自らが発展させたい攻撃的な身体論は日本人に限られ、朝鮮人には、日帝に向けられる攻撃的な性向を抑制し、日帝に服従する従順な身体を作るために分離された「精神と身体」を刻印したことを、本研究を通じて確認できた。

Review of the Emergence of the 'Body Theory' throughout the modernization proces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Yoo, Chul · Kim, Soon-Jeon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how Japan, throughout its modernization process, integrated the mind-body theory from Western notion into the education policy for Korean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The Perry incident had aroused yearning for new civilizations as well as a feeling of danger against the Western influence in Japan. Such transformation in Japan had been predominantly led by the emperor under the slogan of "establishment of the modern nation-state". During this process, Japan acutely came to realize that the importance of enhancing national prosperity and defense, including the necessity to emphasize physical education and training of its people to counter the national power of Western countries and their apparent physical strength. Those actions took precedence over the intellectual education system maintenance, which would be necessary for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of Western culture. Since then, Japan introduced physical education in its regular school education system in order to build the modern nation-state with national prosperity and military power. This transformation had allowed Japanese people to recognize "mind and body" as a unity. Unlike Western physical education, aiming to ease human's aggressive tendency, modern Japan had introduced the modified body theory to its people with the objective of "overthrowing the Western powers". However, through this study, it is found that the aggressive body theory which had been modified and developed by Japan was only applied to its people. Japan had thoroughly applied a different body theory, the separation of mind and body to Koreans in order to suppress any aggressive tendency from Koreans against Japanese occupation, and increase their obedience to Japanese imperialism.